

먼저 첫 번째로 HIV감염을 촉진 시킬 수 있는 남성들의 잘못된 성접촉 습관 및 성의식을 재확인 시켜서 에이즈 예방에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1) 모든 남성들이 성적 접촉 후에 사정된 정액이 전립선 부요도부터 요도 입구까지(개인 간 차이가 있지만) 적은 양의 정액이 남아 있게 되는데 이런 잔류된 정액이 많을수록 세균감염의 적절한 배지 즉 배양 역할을 하고 궤양성 염증 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HIV감염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사정 후에는 곧바로 소변보는 습관을 사춘기 때부터 익혀야 할 것이다.

2) 남성들은 술을 다량 마신 뒤에 성접촉을 하려는 습관이 있다. 기분을 업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독주를 즐기는 남성들 일부는 성접촉 시간을 오래 끌기 위한 목적으로 폭주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긴 시간이 지난 약 십여 년 뒤에는 전립선이 충혈 되고 붓게 되면서 사정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상황은 배뇨곤란 등 많은 증상을 초래하고 되며 전립선염 또는 농양까지 진전될 수 있고 이런 상황 하에서는 어쩌다 한 번의 실수로 HIV가 전립선내에 duct sys-

tem의 점막내로 감염루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HIV감염인의 정액에는 정액의 60%가 전립선액이 섞여 있고 많은 양의 HIV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과도 항상 연관시켜 생각해 보아야 한다.

3) 선천적으로 요도 입구 및 요도 끝 직경이 붕어 입모양으로 넓은 남성들이 있다. 이런 남성들을 항상 성병성 염증 및 궤양성 염증 질환이 아차 하는 실수 때 마다 꼭 나타나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 또한 성기 길이가 조금 더 긴 듯한 남성도 위와 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남성은 스스로 인지하여 콘돔사용과 바른 성생활만이 HIV감염에서 멀리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4) 남성들의 잘못된 성접촉 습관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항문을 이용한 성접촉일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성염색체의 장애로 인한 동성애자는 우리 모두 이해와 관심으로 아량을 베풀어야 하겠지만 어릴 적 사춘기부터 잘못된 길로 갔던 성접촉 습관으로 성인이 되어 항문 괄약근의 강인한 압박감으로 인한 쾌락만을 즐기는 일부 남성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남성은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이상



비뇨기과 질환과 에이즈

비뇨생식기 질환을 이야기 하려면 재정적으로 여성보다는 풍락되어 일방적이고 다양한 성을 추구하면서 자신 있어 하는 남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HIV감염의 넘어 배꼽 0:1의 현 상황에서 무알코올 0:100:100 것이다. 첫째로는 특이한 일부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과 성접촉 습관이 초점을 맞춰서 0:100:100:100 한다. 두 번째는 HIV감염과 아주 밀접한 정량성 감염질환인 임질성 농양이나 궤양성 병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글! 김재성 · 김재성비뇨기과의원장 · 충남의대, 을지대의 외래교수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진 · 충남지회장

인 것이다. 항문성교는 항문의 점막 상처로 염증성 병변 및 궤양성병변을 일으켜 감염기회를 높이는 매우 위험한 성접촉 방법이다. 항문성교를 받는 입장의 남성은 대부분 성격이 소심하고 온순하며 또한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갖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항문성교를 요구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성매매여성들 여론은 항문성교를 요구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물론 절대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HIV감염을 의심할 만한 비뇨기와 질환은 여성의 질과 외음순 또는 남녀의 항문, 대장에서와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성 병변과 궤양성 병변이 주된 증상으로 HIV감염을 아주 쉽게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성병성 감염질환은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HIV감염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매독(syphilis)

감염인과 성접촉 후 약 3주가 지나서 외성기에 무통성궤양과 국소성입파절증대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궤양의 경계가 깨끗한 모양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성접촉 과정이 아닌 치과 치료 중에도 매독이나 HIV감염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매스컴에서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매독 양성인 환자에게는 항상 HIV바이러스 검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기 헤르페스(Herpes Simplex)

남여의 외성기 및 질 입구 외음부 및 엉덩이 찬골부위 등에 다발성 수포가 나타나며 통증과 그 자리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HIV감염인에게는 4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므로 1개월 이상 지속된다거나, 6개월에 2회 이상 재발한다든지 할 때에는 HIV감염 유무를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면역저하가 심할 경우에는 병변들이 모여 큰 통증성 궤양을 만들고 주위 피부로 유착손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요로감염(임질, 비임균성요도염, 진균감염, 연성하감)

요로감염 중에는 미약한 염증으로도 HIV감염기회가 되지만 심한 염증일수록 HIV감염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이런 요로감염증은 가벼운 통증이나 Burning Sensation(화끈거림), 소변 시 가려움 등의 증상을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함으로써 HIV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심한 염증이 되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혼각을 다루어 치료를 해야 할 것이다.

전립선염, 전립선농양(prostatitis, prostatic abscess)

남성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남성 정액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잘 낫지 않는 염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성병으로는 분류치 않으나 일부는 성병을 앓고 난 뒤에 깨끗이 치료를 하지 않아 상행성감염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원인은 정상적인 성접촉 과정에서 발생한다. duct system의 점막조직으로 구성된 샘조직으로 심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농양 상태일 때에는 HIV감염기회가 아주 높은 곳의 한 곳이라고 추정한다. 거의 모든 남성에게 염증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경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앞으로 전립선 염증과 HIV감염기회와의 연관성을 깊이 연구해 봐야 하겠다.

침규 콘딜로마(Condylioma Accu)

사마귀모양으로 성접촉 후에 잘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환인데 비HIV감염인보다 HIV감염인에게서 더 크고 다발성이며 쉽게 재발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냉동치료나 바르는 약물치료 또는 레이저 소작술로 치료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치료가 끝날 때까지 궤양성 병변으로 인해 성접촉을 금해야 HIV감염기회를 막을 수 있다. 재발이 자주 일어나고 다발성일 경우는 HIV검사를 꼭 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남성의 HIV감염인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